

보도 일시	2023. 5. 11.(금) 16:00	배포 일시	2022. 5. 11.(금) 16:00
담당 부서	국립진주박물관 학예연구실	책임자	학예연구실장 김동우 (055-740-0661)
		담당자	학예연구사 이효종 (055-740-0664)

국립진주박물관,

특별전 <공평과 애정의 연대, 형평운동>을 열다

국립진주박물관(관장 장상훈)은 형평사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2023년 5월 13일(토)부터 7월 16일(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특별전 <공평과 애정의 연대, 형평운동>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형평사 주지》를 비롯하여 형평운동 관련 문화재 100여 점이 출품된다. 이 중 조선시대 백정의 삶을 보여주는 《경상도 단성현 호적대장》이 출품되어 주목된다.

이번 전시를 통해, 국립진주박물관은 백정에 대한 인권운동인 형평운동의 역사와 그 운동을 기억하기 위한 노력들을 소개한다. 1923년 진주에서 일어난 형평운동은 백정에 대한 인권운동일 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다양한 차별에 대한 비판의식을 갖게 하는 훌륭한 사회적 유산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번 특별전은 형평운동에 대한 자세한 이해와 함께 우리 사회의 문제를 고민하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이를 위해 전시는 크게 4부로 구성된다.

제1부 ‘조선·대한제국기 백정의 사회적 지위와 삶’에서는 조선시대부터 대한제국기까지의 백정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살펴본다. 이 코너에서는 《경상도 단성현 호적대장》을 통해 조선시대 백정의 구체적인 삶을 조명하고 있다. 또 버들고리, 워낭, 코뚜레 등 백정이 만들거나 사용했던 물건을 통해 백정들의 실제 삶을 실감 나게 소개한다.

제2부 ‘형평운동과 1920~1930년대 백정의 인권’에서는 1923년 형평사가 창립된 뒤 전개된 형평운동의 역사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개한다. 사진자료를 통해 이 시기 전후 백정의 실제 삶을 엿보고, 운동과 관련된 문서, 포스터, 사진 자료를 이용하여 형평운동을 이해하도록 한다. 특히, 백정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인포그래픽이라는 형식으로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제3부 ‘광복 이후 되살아나는 형평운동의 기억: 문학 및 학술, 인권운동’에서는 광복 이후 잊혀진 형평운동을 다시 기억해내기 위한 노력을 조명한다. 황순원의 『일월』, 박경리의 『토지』 등 문학 작품과 『형평운동』·『조선형평운동사료집朝鮮衡平運動史料集』 등 주요 연구서가 전시된다. 특히, 1992년 창립된 형평운동기념사업회가 지난 30여 년간 형평운동을 알리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소개한다.

제4부 ‘형평운동의 유산과 계승: 인권과 연대의 합창’에서는 서예, 회화, 판화, 설치 미술, 그리고 연극을 통해 형평운동을 알린 작품을 소개한다. 이 작품들은 예술 작품을 통해 형평운동의 의의를 표현하고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있다. 이중 기계식 인형인 오토마타(Automata)를 사용해 백정에 대한 다양한 차별을 형상화한 최수환의 설치작품이 주목된다.

아무쪼록 이번 전시가 형평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붙임 포스터, 사진 자료 및 패널 원고 1부. 끝.

2023 국립진주박물관 특별전
2023 Jinju National Museum Special Exhibition

Social Equality Movement for the People

2023. 05. 13. SAT - 07. 16. S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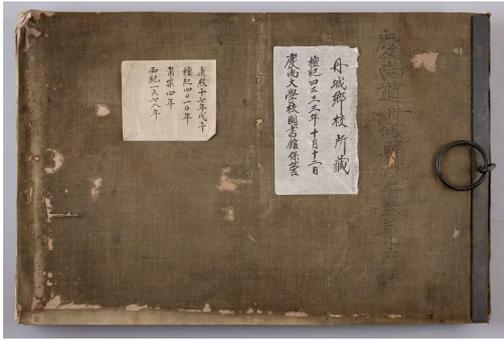
국립진주박물관 기획전시실

공평과 애정의 연대, 형평운동



국립진주박물관 Jinju National Museum | 경남도립미술관 Gyeongnam Art Museum | 형평운동 기념사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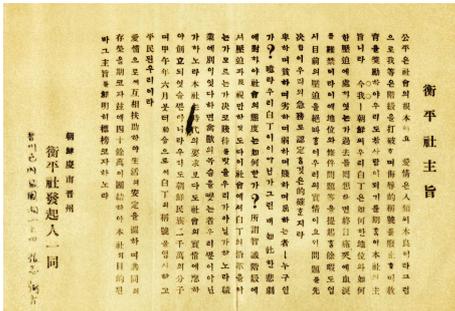
포스터



1) 경상도 단성현 호적대장



2) 사전권조문



3) 형평사 주지



4) 형평사 제6회 정기대회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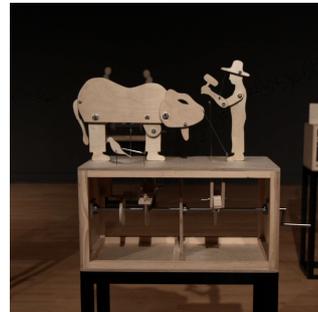
5) 강상호 장례식 촛대



6) 형평운동기념사업회 소식지



7) 박건우 그림



8) 최수환 설치작품

- 1) 경상도 단성현 호적대장
慶尙道 丹城縣 戶籍大帳
조선후기
단성향교, 경상국립대학교 고문헌도서관 수탁
- 2) 사전권조문, 우시장牛市場 상인의 존재를 보여주는 기록
四廬勸助文
조선 19세기 말
국립진주박물관
- 3) 형평사 주지
衡平社 主旨
1923년
복제품
- 4) 형평사 제6회 정기대회 포스터
衡平社 第6回 定期大會 宣傳物
1928년
복제품
- 5) 강상호 장례식 사용 촛대
姜相鎬 葬禮式 使用 燭臺
1957년
국립진주박물관
- 6) 형평운동기념사업회 소식지
衡平運動記念事業會 消息紙
1992년
형평운동기념사업회
- 7) 박건우 그림
朴建宇 水彩畫
2022년
형평운동기념사업회
- 8) 최수환 설치작품
崔壽桓 設置作品
2022년
최수환

[패널 원고]

프롤로그

국립진주박물관은 형평사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특별전 '공평과 애정의 연대, 형평운동'을 개최합니다. 형평운동은 백정에 대한 차별을 없애려는 인권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인권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행으로 남아있는 차별은 법적인 개혁뿐 아니라 끊임없는 문제 제기와 그에 따른 의식적인 개선 노력이 있을 때 점차 바뀌는 것입니다. 따라서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 문제에 대해 전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개선하려 한 형평운동은 우리 사회의 훌륭한 사회적 유산입니다. 형평운동에 관한 직접적인 자료는 많이 남아 있지 않지만,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새로운 자료들을 직접 만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이번 전시가 형평운동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자료에 관한 관심을 높이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나아가 우리나라 근대 인권운동의 선구였던 형평운동의 정신을 계승하여,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다양한 차별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갖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I부. 조선·대한제국기 백정의 사회적 지위와 삶

백정은 고려시대에 양수척楊水尺 또는 화척禾尺으로 불리던 사람들로 유목과 수렵생활을 한 거란인契丹人이나 여진인女真人에 그 유래를 두었다. 이들은 일정한 거주지를 두지 않고 사냥을 하거나 버드나무로 만든 유기柳器를 만들어 팔면서 생업을 유지하였는데 천민의 대우를 받았다.

조선 세종世宗(재위: 1418~1450)은 이들에게 농사를 지으며 한곳에 머물러 살게 했다. 그때 일반 농민을 부르던 백정白丁이라는 칭호로 부르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일반 농민처럼 정착하여 농업에 종사하지 못했고, 이전처럼 짐승을 잡거나[도살屠殺], 가죽 제품을 만들거나[제혁製革], 버드나무로 만든 그릇을 만들면서 살았다. 그래서 조선시대 내내 일반 농민과 달리 사회적으로 최하층민의 차별을 받았고, 일반 백성의 호칭이었던 '백정'도 도살업을 주로 하는 신분을 가리키게 되었다.

1894년 갑오개혁甲午改革으로 백정에 대한 법적 차별은 사라졌다. 그러나 사회적 차별은 전과 같이 지속되었다. 호적표의 신분란에 백정이라는 표시로 '도한屠漢'이라는 표시를 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런 가운데도 백정들은 1898년 독립협회의 만민공동회에 연사로 참여하는 등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려 했다.

II부. 형평운동과 1920~1930년대 백정의 인권

1923년 4월 25일, 백정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 형평운동이 진주에서 일어났다. 백정 출신 장지필張志弼, 이학찬李學贊과 비백정 출신의 강상호姜相鎬, 신현수申鉉壽, 천석구千錫九 등이 주도하여 형평사를 창립한 것이다. 이 운동이 일어나기 전 진주에서는 백정에 대한 차별을 줄이거나 없애려는 노력이 있었다. 진주교회에서는 백정과 비백정이 함께 예배를 보려고 했고, 백정의 경제적 지위를 지키려는 노력이 있었으며, 백정 자녀에 대한 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또, 강상호 등 지역 사회 운동가들이 백정 마을의 실상을 보고 와서 본격적으로 형평운동을 개시하게 되었다고 한다.

형평운동은 초기 운동가들의 열성적인 노력과 백정들의 열화와 같은 호응에 힘입어 매우 빠른 속도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형평운동에 반발하는 기운도 적지 않게 일어났지만, 백정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백정에 대한 차별 관행도 개선되었고, 백정 자녀에 대한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경제적 지위의 유지, 향상을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III부. 광복 이후 되살아나는 형평운동의 기억: 문학 및 학술, 인권운동

형평운동에 대한 기억은 문학, 학술 또는 인권운동의 형태로 다시 조명되기 시작했다. 일제강점기에는 『개벽』에 실린 홍사용의 <봉화가 켜질 때>(1925), 『조선지광』에 발표된 조명희의 <낙동강>(1927), 조선

일보에 연재된 홍명희의 <임걱정>(1928)에서 백정의 삶을 조명했다. 광복 이후 사회적 격변기 속에서 형평운동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졌지만, 1962년 황순원의 <일월>을 통해 다시금 부각되었다. 이 소설은 영화로도 제작되어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박경리의 <토지>와 정동주의 <백정>에서도 백정의 삶과 형평운동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고 있다.

한편, 형평운동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발표되어 형평운동에 관한 종합적인 자료집을 출간하기도 했다. 1993년과 2003년에는 형평운동 70, 8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와 각종 행사를 개최하여 학계와 일반인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사업의 중심에 있는 형평운동기념사업회는 형평운동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했고 우리 사회의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IV부. 형평운동의 유산과 계승: 인권과 연대의 합창

형평운동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는 공평과 사랑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인권 운동이다. 이를 계승하고 표현하는 예술 활동들이 다양하게 펼쳐졌으며, 서예, 회화, 판화, 설치 미술, 그리고 연극에서 두드러진다.

서예 작품으로는 소효영과 이곤정의 작품이 있다. 소효영은 강상호를 기리면서 쓴 글씨로 형평운동을 인간 평등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곤정은 오랜 기간 형평운동을 알리고 기념하는 일에 참여하면서 형평운동의 정신을 글씨로 구현하고 있다. 화가 박건우는 백정과 형평운동에 관한 흔적을 찾아 형평운동의 인물과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 정동주의 소설 <일어서는 혼>(1989~1992)에 드러난 백정의 삶을 판화로 표현한 주정이, 기계식 인형인 오토마타(automata)를 사용해 백정에 대한 다양한 차별을 형상화한 최수환 등이 있다. 또, 극단 현장은 <불꽃>(2002), <마당극 수무바다 흰고무래>(2021) 등 형평운동에 소재로 한 연극을 창작해 공연하고 있다. 이러한 예술 활동은 형평운동에 대한 지적인 이해와 관심을 넘어 사회적 차별에 대해 마음속 깊이 공감하여 실천하게 한다.

에필로그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많은 불공정과 불평등 그리고 그에 따른 고통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이러한 상황을 멈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형평운동을 들여다 봅니다. 그리고 형평운동가들을 기억합니다.

장지필, 이학찬, 천석구, 신현수, 강상호, 그리고 수많은 형평사원들.

이들은 말하기는 쉬워도 행하기 어려운 일을 실천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이 전시를 개최하는 것은 그저 그들을 기리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여러 차별이 현실을 파악하고 상처받은 이들에 공감하며 함께 고쳐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인권에 대한 분명한 시각을 제시한 <형평사주지衡平社主旨>의 첫 구절을 읽으면서 전시를 마치고자 합니다.

공평公平은 사회社會의 근본根本이요,
애정愛情은 인류人類의 본량本良이라.

1923년 4월 25일
조선 경남 진주
형평사 발기인 일동

* 본량本良: 본래 타고난 양심